

‘동아시안컵 4연패 도전’ 벤투호…요코하마 참사 설욕?

오늘 오후 7시20분 한일전…비기기만 해도 우승 확정

역대전적 42승23무15패 우위…최근 맞대결 0-3 참패

벤투호가 요코하마 참사 설욕과 함께 동아시아축구연맹(AFF)-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4연패에 도전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27일 오후 7시20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동아시안컵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앞서 한국은 중국(3-0 승), 홍콩(3-0 승)을 연파하고 2연승을 달리며 조 선두(승점 6)에 올라 있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4개국 이 풀리그로 우승을 가린다.

한국은 2차전에서 중국과 무승부를 거둔 2위 일본(승점4·1승1무)과 비기기만 해도 대회 4연패에 성공한다.

동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지 않아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등 유망파가 합류하지 못했다.

수비수 권경원(갑오오사카)을 제외하면 전 원 K리거로 구성됐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일본과 역대전적에서 42승23무15패

로 우위에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인 3월 요코하마 원정에선 0-3으로 참패를 당했다.

비거도 우승이 확정되지만, 당시 참사를 설욕하기 위해 벤투호는 최정에 멤버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홍콩과 2차전은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해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했다.

다만 벤투호의 핵심 미드필더인 황인범(서울)이 그리스 명문 올림피아코스 이적을 위해 홍콩전을 앞두고 소집 해제된 건 아쉽다.

황인범의 빈자리는 김진규, 백승호(이상 전북), 이영재, 권찬훈(이상 김천) 등이 메울 전망이다.

벤투 감독은 “황인범이 일본전에도 출전을 못 하기 때문에 엄원상(울산)을 어떻게 투입해서 일본을 이겨야 할지, 동아시안컵에서 우승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전 공격 선봉엔 중국과 첫 경기에서 골맛을 본 조규성(김천)이 유력하다. 또 선발 데뷔전이었던 홍콩과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은 신예 강성진(서울)의 출전 여부도 관심사다.



홈에서 우승을 놓칠 위기에 놓인 일본도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콩을 6-0으로 대파한 뒤 중국전에서 23개 슈팅을 기록했지만,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하지만 모리야스 감독 경질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분위기를 바꾸려면 한일전 승리가 절실하다.

모리야스 감독은 중국전을 마친 뒤 “(중국

전)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전을 준비하고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

‘우상혁 은메달 수확’ 한국 육상, 세계선수권 역대 최고 공동 33위

종전 2011년 대구 대회 공동 34위에서 한 계단 올라서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의 은빛 도약과 함께 한국이 역대 최고 성적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6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개막한 2022 세계육상선수권은 25일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한 개를 수확했다.

월드클래스 점퍼로 우뚝 선 우상혁이 남자 높이뛰기에서 따낸 값진 메달이다.

우상혁은 지난 19일 결선에서 2m35를 넘어 한국 육상 최초의 세계선수권 은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남겼다.

우상혁이 한국에 안긴 첫 세계선수권 은메달과 함께 한국은 역대 최고인 공동 33위에 올랐다. 알제리, 그리스, 인도, 크로아티아 등이 한국과 나란히 자리했다.

한국의 종전 최고 성적은 2011년 대구 대회

에서 거둔 공동 34위다. 한국이 세계육상선수권에서 첫 메달을 수확한 대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초대 세계육상선수권인 1983년 헬싱키 대회부터 선수를 파견했지만, 2009년 베를린 대회까지 매년 빈손으로 돌아왔다.

당초 2011년 대구에서도 세계육상선수권 사상 첫 개최국 노메달 불명예를 썼다.

그러나 당시 대회 남자 20km 경보에서 1시간21분17초로 6위에 올랐던 김현성이 다른 선수들의 금지약물 적발로 3위까지 올라서며 뒤늦게 동메달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세계육상연맹이 이를 반영해 2011년 대구 대회 메달 집계 순위를 수정하면서 한국은 공동 34위에 자리했다.

그리고 이제 ‘첫 은메달’과 함께 공동 3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다만 이번 대회에 나선 한국 선수 3명 중 순위권에 든 건 우상혁뿐이다.

남자 20km 경보 최병광(삼성전자는)은 1시간28분56초로 34위에 그쳤다. 남자 마라톤 오주한(청양군청)은 레이스 중 기권했다.

한편, 이번 대회 1위는 개최국인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은 금메달 13개·은메달 9개·동메달 11개를 쓸어들었다.

미국은 종목별 1~8위에 차등 분배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종합 순위에서도 328점을 획득, 110점으로 2위에 오른 자메이카를 압도적인 차이로 제쳤다.

돌아온 여제 김연경, KOVO컵 기업은행전서 첫 출격

오는 8월13일 순천서 개막…홍콩생명 vs 기업은행

돌아온 ‘배구여제’ 김연경이 이끄는 홍콩생명명과 IBK기업은행의 열전으로 시작으로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이 막을 올린다.

KOVO컵 여자부는 오는 8월13일부터 전남 순천시 순천팔마체육관에서 개막한다. 순천에서 KOVO컵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오는 13일 오후 1시20분 홍콩생명명과 기업은행의 경기가 열리며, 오후 4시부터 GS칼텍스와 일본 히사미츠가 맞대결을 펼친다.

히사미츠는 2021-2022시즌 일본 여자배구리그 챔피언으로, 초청팀 자격으로 KOVO컵에 출전한다.

김연경의 복귀로 프로배구는 다시 한 번 흥행몰이에 나섰다.

김연경은 지난달 홍콩생명명과 총액 7억원에 계약했다. 만 34세의 김연경이 여전히 세계 정상급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월18일까지 여자부 조별리그 경기가 펼쳐지며, 19일 준결승전, 20일 오후 1시30분에 결승전이 열린다.

현대건설은 KOVO컵 2연패를 노린다. KOVO컵 남자부는 8월21일 오후 1시30분 우리카드와 한국전력, 오후 4시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의 경기를 시작으로 열전



돌입한다.

조별리그를 치른 후 27일 남자부 준결승전이 열린다. 대망의 결승전은 28일 오후 1시30분에 개최된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우승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린다.



2022 국제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계주에서 동메달을 수확한 김선우(사진 왼쪽)와 김세희. (사진 = 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근대5종 김세희·김선우, 세계선수권 女계주 동메달

김세희(BNK저축은행)와 김선우(경기도청)가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 계주 동메달을 수확했다.

김세희와 김선우는 25일(현지시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2022 국제근대5종연맹(UIPM)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계주 경기에서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260점을 얻어 3위에 올랐다.

김세희와 김선우는 지난해 2020 도쿄올림픽에 나란히 출전한 한국 여자 근대5종의 간판이다.

이들은 전날 남자 계주의 전용태(광주광역시청)와 정진화(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메달을 따내며 이어 또다시 낭보를 전했다.

한국이 근대5종 세계선수권 여자 계주에서 메달을 딴 것은 김세희-김선우가 역대 두 번째다. 앞서 2019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김은주-정민아가 동메달을 딴 것이 최초 사례다.

김세희-김선우는 펜싱 랭킹 라운드에서 19승을 기록, 개최국 이집트(24승)와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22승)에 밀려 한때 메달권에서 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승마에서 300점 만점을 받으며 추격의 끈을 놓지 않았고, 수영에서 전체 1위를 하며 레이저 런 핸드캡 출발 순서를 3위까지 끌어올렸다. 레이저 런 사격에서 다소 실수가 있었지만 육상에서 만회한 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세희는 UIPM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남자 계주 금메달 획득에 이어 추가 메달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 팀 동료 김선우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우는 “우리는 지난 10년동안 한 팀으로 해왔기에 서로를 믿고 있다. 서로 좋은 파트너이자, 또 선의의 경쟁자”라고 전했다.

타프로선수는 연봉 공개하는데 LCK는 “시기상조” 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가 e스포츠 선수들의 연봉 공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연봉 공개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봉 공개 시 나타날 부작용들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LCK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톨파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규 제도들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 총장은 LCK가 e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타 스포츠리그를 보면 선수들의 연봉을 공개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다만, 현재 LCK는 선수 간의 연봉 격차에 따른 위화감 등을 부수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LCK 선수들의 최저연봉은 6000만원 수준이다. 국내 여느 프로 스포츠와 비교하더라도 최상위 수준의 최저연봉을 지급한다.

리그에 따르면 LCK 간판스타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지난 연말 T1과 ‘연봉 50억원+α’ 수준의 재계약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LCK에는 ‘페이커’뿐만 아니라, 고액 연봉자들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각 팀의 핵심 선수 중에는 15억~20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는 한국 프로농구(KBL) 선수들의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서울SK라이츠의 김선형 선수가 2022~2023시즌 KBL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8억원(연봉 5억6000만원·인센티브 2억40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뉴스

루마니아 라피드 부쿠레슈티, 이다영 영입 공식 발표

이다영(26)이 루마니아 배구리그로 이적했다.

루마니아 라피드 부쿠레슈티 구단은 지난 25일(한국시간) 공식 SNS를 통해 이다영의 이적 소식을 알렸다.

라피드는 “우리 구단에 온 걸 환영한다”며 “이다영은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와 V-리그 흥국생명과 현대건설 등에서 뛰었다”고 소개했다.

이다영은 2014년 현대건설에 입단했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터로 활약했다. FA 자격을 얻어 2020년 흥국생명으로 옮긴 이다영은 쌍둥이 언니 이재영과 함께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다.

하지만 2020~2021시즌 과거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한국 무대에



서 퇴출됐다.

이다영과 이재영은 그리스 PAOK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재영은 무릎 부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재영은 루마니아 리그로 이적했다.

한편 부쿠레슈티는 루마니아 리그에서 19차례 우승한 강팀이다.

뉴스